

점성Q | 스크린 스타·감독 해외진출 러시



총무로는 좁다 헬로우! 한류우드

(한류+할리우드)



송혜교·송승헌, 해외진출작 흥행시동 미국 투자사, 박찬욱 감독 등에 러브콜 강제규 감독, 글로벌 프로젝트 메가폰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시즌2’라 할 만하다. 장동건의 할리우드 진출작 ‘위리어스 웨이’가 12월2일 한국, 3일 미국서 개봉을 앞둔 가운데 송승헌, 송혜교 등 스타들과 김지운, 나홍진 등 감독들의 해외 진출도 활발하다. 이병헌, 정지훈(비), 정우성, 전지현 등 톱스타급 배우들의 할리우드를 비롯한 해외 시장 나들이에 이은 또 다른 행보이다. 송승헌은 한국의 CJ엔터테인먼트, 일본의 파라마운트 픽처스 재팬과 메이저 영화사 쇼치쿠가 공동 제작한 ‘고스트: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나섰다.

‘고스트:보이지 않는 사랑’은 일본 여배우 마츠시마 나나코와 송승헌이 주연을 맡고, ‘고구센’ 시리즈의 오오타니 타로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사랑과 영혼’의 리메이

크작. 13일 일본에서는 305개관에서 개봉해 현지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르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송혜교 역시 25일 첫 해외 진출작 ‘페티쉬’가 국내에서 개봉한다. 무속인의 삶을 버리고 한국계 미국인과 결혼한 여인의 갈등과 욕망을 그린 영화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독일 울펜부르크 국제영화제, 샌프란시스코 아시아영화제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송혜교는 이밖에 명장 왕자웨이(왕가위) 감독, 린칭사(임청하), 장쑤이 등 중국 스타들과 함께 ‘일대중사’에도 출연해 활동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배우들에 이어 최근에는 감독들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졌다. 이미 박찬욱 감독이 칸 등 해외 영화제에서 얻은 명성과 연출력에 힘입어 미국 유니버설 픽처스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봉준호 감독 역시 해외 영화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악마를 보았다’의 김지운 감독은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라이온스 게이트의 ‘라스트 스탠드’를 연출한다. ‘테이큰’의 리암 니슨이 주연을 맡는다.

‘추격자’의 나홍진 감독은 새 영화 ‘황해’를 연출하며 할리우드 20세기폭스사의 픽스 인터내셔널 프로덕션사의 투자를 얻

었다. 총제작비의 20% 규모를 투자한 폭스 측은 “그의 ‘추격자’를 본 뒤 하정우와 김윤석까지 조합을 이룬 점에 대한 신뢰”로 시놉시스 단계에서 투자를 결정했다. ‘황해’의 후속편과 리메이크 제작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태극기 휘날리며’로 1000만 관객을 불러 모은 강제규 감독은 장동건과 다시 뭉쳐 글로벌 프로젝트인 ‘마이 웨이’를 한창 연출 중이다. 일본의 오다기리 조, 중국의 판방링 등 해외 스타는 물론 해외 투자까지 끌어들이며 블록버스터 전쟁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디 워’의 미국 흥행으로 힘을 얻은 심형래 감독도 12월 말 국내 개봉하는 ‘라스트 갓파더’로 또 한 번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에반 올마이어’의 작가 조엘 코헨과 알렉 소코로브가 심 감독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처럼 배우들과 감독들은 기존의 합작이나 투자 권인 등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또 그만큼 다양한 시장으로 나아가며 한국영화의 성장세를 입증하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한국 배우들과 감독들의 해외 진출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와우! 1800억... ‘G.I.조’ 이병헌 대박 흥행

■ 해외진출 1세대 스타들의 성적은?

정지훈 정우성 전지현 ‘절반의 성공’

이병헌, 정우성, 전지현 그리고 정지훈...

최근 할리우드를 비롯해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으로 떠오른 한국 배우들의 이름이다. 인기 ‘미드’ ‘로스트’ 시리즈의 김윤진까지 포함하면 한국 배우들의 해외 속명활약의 양상은 더욱 활발해 보인다. 한국 배우들의 해외 진출 ‘시즌1’을 장식한 이들의 흥행 성적은 어떨까. 김윤진은 ‘로스트’ 시리즈로 전 세계

200여개국에서 명성을 얻었다. ‘로스트’가 인기 시리즈로 떠오르면서 완벽한 영어 대사 소화가 가능한 그는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첫 할리우드 진출작 ‘G.I.조:전쟁의 서막’에서 비중있는 조연으로 활약한 이병헌 역시 흥행의 단맛을 봤다. 지난해 미국 개봉 당시 첫 주말 3일 동안 4007개 극장에서 5471만 달러의 수입으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또 영화는 모두 1억5000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얻었고 이병헌은 전 세계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정지훈은 2008년 ‘스피드 레이스’와 지난해 ‘닌자 어쌔신’으로 할리우드에 안착

했다. 아시아권 인기를 발판으로 액션 연기기에 도전한 그는 큰 흥행의 기쁨은 맛보지 못했지만 그 위상을 확고히 했다. ‘닌자 어쌔신’의 주연을 폐한 뒤 또 다른 할리우드 영화를 노리고 있다.

정우성은 최근 개봉작인 중국 영화 ‘검우강호’, 전지현은 글로벌 프로젝트 ‘블러드’로 각각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 두 편 모두 크게 흥행하지는 못했지만 정우성은 우위권 감독과 할리우드 프로듀서 테렌스 창 의 눈에 들면서 또 다른 진출을 꾀하고 있다. 전지현도 일찌감치 해외에서 명성을 얻어 다시 한 번 도약할 기세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2008년부터 할리우드에 진출하며 시즌1을 장식했던 이병헌과 전지현, 정지훈(위부터). 스포츠동아IDB



최경아의 6색 건강요가

모으고 피고... 옆구리살·뱃살 굿바이!

주부 우울증과 의욕 상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소위 잘 나가는 남편, 공부 잘하는 우등생 자녀, 모두 본인이나 잘나서 성공했다고 느낀다. 아내와 엄마로서 묵묵히 애쓰는 것은 아는지, 모르는지... 이름도 없이, 정체성도 없이 살아가는 지 오래다. 누구 하나 인정해주는 이 없어도 그래도 행복해하며 현신한다. 그것이 주부의 삶이고 여자의 일생이런가? 그렇다면 내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끔은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한다. 피어난 하늘을 올려다보며 흰 구름을 바라보자. 시원하고 찬 공기와 바람을 쐬어보자. 신선하고 짜릿한 감각이 당신을 깨워줄 것이다. 홀로 문화생활을 즐겨보자. 전시회, 미술 감상, 영화, 쇼핑 등 늘 나 아닌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던 주부였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본인의 오감을 채워보자.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대학로에 갔다. 지하철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신문 읽는 사람, 귀퉁귀퉁 조는 사람, 눈치없이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 옆사람과 떠드는 사람, 책 읽는 사

람, 물건 파는 사람 등 각자 다른 행동, 다른 생각으로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 지하철에서 올라와보니 인도에는 가득한 리어카들이 줄 서 있었다. 양말, 머플러, 장갑, 액세서리, 봉어빵, 떡볶이 등 사람 사는 냄새가 났다. “양말 500원”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보고, 필자의 대학 재학 시절 학교 앞 리어카 양말 값이 500원이었는데 세상이 변해도 그대로인 것도 있구나! 하고 느꼈다.

정말 감동받은 건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들 제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었다. 또한 홀로 사진전을 감상하며 나만의 행복을 알았다. 집으로 오는 길에 내 가족을 위해 더욱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내 부모, 내 남편, 내 딸, 내 친구들. 소중한 그들이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다. 가끔은 나를 위한 충전이 필요하다.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했다면 이번에는 몸에 기운을 불어넣어보자.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더 잘해주기 위해서라도 내 건강은 필수이니깐.



1. 서서 오른다리를 앞으로 뺀 발목을 왼 다리에 걸쳐 중심을 잡는다. 양손은 교차하여 깍지를 낀 후 물러서 가슴 앞에 둔다. 10초 정지, 다리를 바꾸어 10초 정지, 좌우 교대 3회 반복.



3.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오른팔은 위로, 왼팔은 아래로 뻗은 후 등 뒤에서 맞잡는다. 10초 정지, 좌우 교대 3회 반복.



2. 고양이 자세를 취하듯 엷드린 상태에서 양 무릎을 어깨너비의 2배로 벌린다. 호흡을 내뿜으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시선은 발끝을 바라본다. 10초 정지, 좌우 교대 5회 반복.



4. 양발을 붙이고 앉고 호흡을 내뿜으면서 상체를 숙인다. 이때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본다. 10초 정지, 5회 반복.

※효과: 1. 하체 강화는 물론 균형감각과 집중력이 생긴다. 2. 옆구리 다이어트와 복부 비만을 해결하고 어깨관절의 유연성 증대로 오십견을 예방한다. 3. 골반 균형을 맞추고 자율신경계의 호흡을 조절한다. 4. 어깨, 허리, 골반, 다리 등 전신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몸과 마음이 상쾌해진다.

※주의: 1. 3번 자세에서 손을 잡지 못할 경우 수건이나 밴드를 이용하여 수련하고 좌우 비교 후 잘 안되는 쪽을 많이 한다. 2. 4번 자세에서 경추를 자극시켜주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숙였다 반복해준다.

최경아

MBC해설위원 | 국민생활체육회 전문위원 | 저서: 100일 요가(결코 아깝지 않은 내 몸 투자)